

CNU 이달의 도서(7월) 안내문

2024. 7.



충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Office of Education Innovation

I. 목적 및 필요성

- 학습의 기본이 되는 지적 호기심 유발과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기제로써 고전 독서의 중요성 증대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인문학적 소양 함양 및 통합적 독서 활동 필요
- 독서에 대한 흥미와 자발적인 독서 태도 함양을 통해 책과 함께하는 대학 문화 조성

II. 프로그램 세부 내용

1 프로그램 운영 개요

- ☐ 운영기간: 2024. 7. 1.(월) ~ 7. 31.(수)
- ☐ 주요내용: CNU 이달의 도서 선정 및 선정 도서 관련 주제의 온라인 특강 운영
- ☐ 주관: 충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교양교육센터

2 CNU 이달의 도서

- ☐ 주요내용: 교양도서 및 ‘CNU 교양도서 100선’ 중 추천도서 선정
- ☐ 선정내용
 - 선정도서: 『담론』(신영복 저)
 - 추천자: 박용한 교육혁신본부장
 - 추천이유

첨단기술과 과학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점점 더 강력하게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과학 기술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도 인문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문학은 해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해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비판적이고 창의적 사고를 촉진한다. 이 책 ‘담론’은 오랫동안 대학에서 인문학 강의를 해오신 신영복 선생님의 마지막 강의를 엮은 것이다. 현재 대학생들은 ‘처음처럼’이란 소주의 이름과 소주병 라벨의 글씨가 신영복 선생님의 수필집 제목에서 그대로 가져왔음을 아는 이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사람’을 키워내는 것으로서의 인문학을 얘기한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강의는 대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뿐만 아니라 우리로서의 삶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서 한층 더 성장하도록 할 것이다.

3

CNU 이달의 도서 특강

- ☐ 주요내용: ‘CNU 이달의 도서’ 관련 주제의 온라인 특강 운영
- ☐ 참여대상: 충남대학교 학부 재학생
- ☐ 운영기간: 2024. 7. 1.(월) ~ 7. 31.(수)
- ☐ 특강내용

주제	강연자	분량	URL	비고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담론	신영복	40분	https://youtu.be/03L2g-ikTVE?si=RnzwBICBOLIIYDd-	전체 영상 중 0:00~40:00 시청

- ☐ 운영방법: 온라인 콘텐츠를 시청하고 소감문(사후 설문조사) 작성 시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시간 1시간 인정(꿈모아 마일리지 부여)
- ☐ 참여방법


순서	구분	세부방법
1	신청	학생경력통합관리시스템(https://withu.cnu.ac.kr) → 역량개발프로그램(비교과 프로그램) → ‘CNU 이달의 도서(7월) 특강’ 검색 및 신청
2	특강 시청	CNU 이달의 도서 온라인 콘텐츠 시청
3	소감문(사후 설문조사) 작성	역량개발프로그램(비교과 프로그램) → 신청현황 → 프로그램신청현황 → 사후 설문조사 ‘미작성’ 클릭 ※ 신청자 상태가 ‘선발’ 상태로 변경된 후 작성 가능

- ☐ 문의: 교양교육센터(042-821-7393, cnule@cnu.ac.kr)



박용한
충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장

교육혁신본부장 추천
CNU 7월의 도서
살펴보기



CNU 이달의 도서

CNU 이달의 도서란?
매월 추천 도서를 선정하고,
선정 도서와 관련된 온라인 특강을 운영하는
독서 장려 프로그램



「담론」 (신영복 저)


첨단기술과 과학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점점 더 강력하게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과학기술의 장광에 있는 인물들도 인문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문학은 해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해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비판적이고 창의적 사고를 촉진한다. 이 책 '담론'은 오랫동안 대학에서 인문학 강의를 해오신 신영복 선생님의 마지막 강의를 엮은 것이다. 현재 대학생들은 '처음처럼'이란 소주의 이름과 소주병 라벨의 글씨가 신영복 선생님의 수필집 제목에서 그대로 가져왔음을 아는 이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사람'을 키워내는 것으로서의 인문학을 얘기한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강의는 대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뿐만 아니라 우리로서의 삶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한층 더 성장하도록 할 것이다.

도서 관련 특강 참여방법

참여대상: 충남대학교 학부 재학생

- 충남대학교 학생경력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CNU 이달의 도서 특강' 검색 후 신청
- 소감문 작성 시, 꿈모아 마일리지 지급

신청현황 → 사후설문조사 '미작성' 클릭


참여후기 

추천사와 영상을 보고 배경지식이 쌓인 뒤 책을 읽으니깐 더 재미있게 독서할 수 있었어요!

좋은 도서도 추천받고, 흥미로운 강의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학과 공부만 하다보면 생각이 좁아지기도하고 정작 중요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쉬웠는데, 도서를 통해 파생되는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달의 도서 특강을 통해 도서 외 또 다른 지식을 추가적으로 쌓아 간다는 느낌을 받아서 유익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도서도 강의를 통해 가벼운 마음으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깊게 사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참여하고 싶습니다



책 읽기는 교양교육센터와 함께!

문의전화: 042-821-7393
문의메일: cnule@cnu.ac.kr
인스타그램: [cnu_gyoyang](https://www.instagram.com/cnu_gyoyang)



박용한

충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장

교육혁신본부장 추천

CNU 7월의 도서

살펴보기



「담론」(신영복 저)

첨단기술과 과학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점점 더 강력하게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과학기술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도 인문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문학은 해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해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비판적이고 창의적 사고를 촉진한다. 이 책 '담론'은 오랫동안 대학에서 인문학 강의를 해오신 신영복 선생님의 마지막 강의를 엮은 것이다. 현재 대학생들은 '처음처럼'이란 소주의 이름과 소주병 라벨의 글씨가 신영복 선생님의 수필집 제목에서 그대로 가져왔음을 아는 이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사람'을 키워내는 것으로서의 인문학을 얘기한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강의는 대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뿐만 아니라 우리로서의 삶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서 한층 더 성장하도록 할 것이다.